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은 다양한 국가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선수가 부모와 조부모 국적의 대표팀으로도 뛸 수 있게 문을 크게 열었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마이크 피아자는 할아버지의 나라 이탈리아,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단 3년간 살았던 도미니카공화국, 조니 데이먼은 어머니의 나라 태국대표팀으로 WBC에 참가했었다(맨 왼쪽부터).



이대호

롯데-시애틀 합동훈련 이대호 전 동료와 재회?

대표팀 합류 시기에 따라 성사 가능성

KBO구단들이 장거리이동의 부담을 감수하고, 미국으로 전지훈련을 떠나는 것은 날씨와 시설이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메이저리그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데에는 단서가 붙는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스프링캠프를 하러 들어오면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롯데는 미국 애리조나 피오리아의 시애틀 매리너스 훈련 캠프를 사용해왔다. 볼만이 없었는데도 하마터면 이번에는 미국행을 접을 뻔했다. 왜냐하면 3주의 일정 중 마지막 1주일 기간에 시애틀 선수들이 피오리아로 들어오기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롯데는 고작 2주일 훈련 때문에 피오리아로 들어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훈련장을 다시 세팅하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고된 작업이다. 번뇌의 와중에 뜻밖에도 시애틀에서 낭보가 왔다. '마지막 1주일 동안, 롯데와 시애틀이 같이 시설을 이용해도 좋다'는 답신이 온 것이다. 피오리아 훈련시설이 워낙 광대해 양 팀 선수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 덕에 롯데로 컴백한 이대호(35)는 지난해 팀 동료였던 시애틀 선수들과 재회할 수도 있을 듯하다. 관건은 이대호의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합류 시점이다. 롯데 관계자는 6일 "최종 판단은 조원우 감독님과 이대호가 협의해 결정하겠지만 예정보다 조금 더 일찍 대표팀에 보내줄 의향이 있는 것 같다"고 기류를 전했다.

애리조나 캠프를 종료하면 롯데는 2차 캠프지로 일본 오키나와로 이동한다. 단골 2차 캠프지였던 일본 가고시마를 포기하고, 오키나와로 비집고 들어간 것이다. 실전을 많이 치르고 싶어하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됐다. 캠프지 세팅에서부터 롯데가 '올해는 한번 해보자'는 열성을 발휘하고 있다.

김영준 기자 galzby@donga.com

국적이나, 혈통이나...WBC 국가 선택 천태만상

스토리 베이스볼

중국계 3세 브루스 천, 중국대표팀 합류
피아자·데이먼도 부모님 나라를 가슴에
호주는 영주권 가진 구대성에 러브콜도

kt의 영건 주권(22)이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중국 대표로 출전하기로 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주권은 1995년 중국 지린성 출신으로, 중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뒤 2005년 할머니의 나라인 한국으로 건너와 귀화했다. 주권의 현재 국적은 한국. 그러나 중국대표팀의 존 맥라렌 감독이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에 위치한 kt의 스프링캠프까지 직접 찾아 kt와 주권의 최종 승낙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주권 이어 브루스 천도 중국대표 합류

야구는 일부 국가에서만 성행하다보니 아직 전 세계가 참가하는 대회로 발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2006년 WBC 초대 대회를 창설할 때부터 독특한 규정을 마련했다. '조부모와 부모 중 한 명의 국적으로 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민권과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의 대표로도 출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규정은 주로 야구 변방국에서 활용하고 있다. 5일 주권이 중국대표팀에 합류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됐는데, 하루 뒤인 6일에도 은퇴한 전 메이저리거 브루스 천(40)이 중국대표팀에 합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천은 파나마 국적의 중국계 3세로, 조부모가 20세기초 중국을 떠나 파나마에 정착했다. 1998년부터 2015년까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며 통산 82승(81패)을 기록했다. 전설의 마무리투수 마리아노 리베라(82승60패, 652세이브)와 함께 파나마 출신 빅리거 최다승 타이 기록이다. 2015년을 끝으로 은퇴한 천은 "내 뿌리를 찾는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다. WBC 출전에 부모님은 무척 자랑스러워하시며, 조부모님이 살아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지 모른다"면서 다시 몸을 만들어 중국대표팀에 도움이 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중국은 B조에 속해 일본 도쿄 라운드에서 쿠바(8일), 호주(9일), 일본(10일)과 차례로 만난다. 주권과 브루스 천이 어떤 경기에 등판해 어떤 활약을 펼칠지 흥미로워지고 있다.

●피아자는 이탈리아, 데이먼은 태국 대표

WBC는 초대 대회부터 메이저리그 슈퍼스타들이 조상의 나라를 대표해 뛰었다. 박찬호와 베

리리를 이했던 마이크 피아자가 대표적이다. 피아자는 2006년 제1회 WBC 때 할아버지 나라인 이탈리아 대표로 출전해 화제를 모았다.

알렉스 로드리게스(A로드)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뒤 4세 때 부모를 따라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억이주했다가 7세 때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성장했다. 어느 나라를 대표해야하는지를 놓고 양국 팬들까지 가세해 뜨거운 논쟁이 펼쳐졌는데, 결국 2006년 제1회 대회에서는 미국 대표로, 2009년 제2회 대회에서는 도미니카공화국 대표로 출전했다. 특히 2006년 WBC 때 한국전에 4번타자로 나섰는데, 한국 선발투수 손민한이 3회 3구삼진으로 돌려세운 장면은 지금도 국내 팬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제3회 WBC를 앞두고 2012년 열린 아시아 지역예선에서는 '동글맨' 조니 데이먼이 어머니의 나라 태국대표팀 유니폼을 입어 눈길을 끌었다. 미 육군 하사관 출신인 아버지가 태국에서 근무할 때 태국인 어머니를 만나 데이먼을 낳았다.

●팀 린스컴은 필리핀 대표, 구대성은 호주 대표 될 뻔?

당시 태국이 조니 데이먼을 대표팀에 합류시키자, 태국, 대만, 뉴질랜드와 아시아지역 예선을 벌여야했던 필리핀이 2차례(2008·09년) 내

셔널리그 사이영상을 받은 팀 린스컴의 합류를 위해 공을 들이기도 했다. 린스컴의 어머니가 필리핀 이민자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린스컴의 필리핀대표팀 출전은 불발됐다. 호주도 2013년 구대성에게 러브콜을 보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구대성은 2010년 KBO리그 은퇴 후 가족과 함께 호주에 가서 살면서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과 개마천 격돌 이스라엘도 유대계 미국인 경계

이번 2017 WBC에서도 현 국적과는 달리 조상의 혈통을 찾아 국가대표에 승선하는 선수들이 많아질 전망이다. 2월7일 최종 엔트리 제출 마감시한이 지나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지만 한국과 같은 1라운드 A조에 속해 3월6일 개막전을 치러야하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당초 메이저리그 슈퍼스타인 내야수 폴 골드슈미트와 이안 킨슬러도 이스라엘대표팀에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둘 다 이번 WBC에는 미국 대표로 출전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5년까지 빅리그 통산 124승을 올린 제이슨 마르퀴스를 비롯해 메이저리그와 마이네리그 경험이 풍부한 유대계 미국인 선수들이 대거 가세할 예정이어서 한국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다 함께 웃는 브랜드

60년 전통 가마솥

공자암 할매 소머리국밥

주방장 없이 어디서나 초보자도 쉽게 창업

장사가 안되십니까? 요즘 불황에 뜨고있는 국밥집
업종 변경으로 성공난 대박 집 70여곳!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업종 전환(200만원) / 신규 창업

OPEN시 간판 지원

맞춤형 창업 / 별어서 값으세요! 이익내서 받겠습니다

공자암에서 일매출 500만원 이상 판매 되고 있는 소머리국밥으로 지역에서 명소가 되세요!

성공 사례

일매출 10만원~30만원 팔던 가게
고민끝에 간판 바꿔 업종변경으로
일매출 150만원

메뉴/선택가능

소머리국밥,순대국,육개장,갈비탕
설렁탕,곰탕,감자탕,소머리수육
마늘보쌈,갈비찜,곱창구이

1월 오픈예정점

창원점,보은점,김천점,
대전북수점,효자동점,마산터미널점
거제2호점,제주연동점,동해새운점

가맹점 모 집

1588-3892